

# 2018 4.16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 결과

## I

### 행사 개요

- 일시 및 부대 : 2018. 4. 16.(월) 17사단(인천 부평)
- 참석 인원 : 입영장정 및 가족 등 동반자 700여 명

## II

### 행사 내용

- 병무상담·홍보 및 이벤트 진행(실외 : 정무관 앞 공터)
  - 병무상담 및 홍보 : 인천청
    - 훈련기간, 퇴소일자 등 궁금증 해소
    - 홍보 리플릿 배부 및 기념품 증정
  - 부모님 업고 걷기(어부바 길) : 인천청
    - 입영장정이 감사의 마음으로 부모님 업고 걷기
    - 즉석 사진 촬영 및 참가자 기념품 제공
  - 즉석 사진 이벤트 : 인천청
    - 굳건이와 함께 기념촬영, 행사장 분위기 조성
    - 가족·연인과 함께 즉석 사진 촬영
  - 전투 장비 및 보급품 전시 : 17사단
    - 가족들에게 보급물품 및 전투장비 안내·체험 기회 제공
  - 사랑의 편지 쓰기 : 인천지청, 17사단
    - 입영대상자에게 응원의 편지 작성
    - 가족·친구·애인 등에게 감사의 편지 작성

□ 입영격려 축하 공연 및 자유발언(실내: 정무관)

○ 진행 : 17사단, 인천청

○ 축하 공연

- 군악대 연주 : 17사단

- 사물놀이 공연 : 9인조 한피 사물놀이(동영상 참조)

- 댄스 공연 : 여성 5인조(스윗-걸)

○ 자유 발언

- 발언자 : 어머니+입영자, 아버지+입영자, 여자친구+입영자

- 내 용 : 입영 소감, 입영장정에 대한 응원과 격려

- 자유발언자 기념품 전달 : 인천병무지청장

□ 입영문화제 참가에 대한 감사 및 입영장정 격려 : 인천지청장

○ 입영문화제 취지 설명 및 참가에 대하여 감사 인사

○ 공정 병역이행을 정착을 위한 병무행정 추진 내용 설명

○ 새로운 출발과 도전하는 입영장정 격려사

□ 입영문화제 참관소감 설문조사(41명) : 인천지청

○ 주요 설문 응답 현황

1. 입영문화제 행사 인지여부 : 알고 있었다(28), 몰랐다(13)

2. 입영문화제가 군 입영에 대한 부담감 해소와 자부심 제고 등에 도움 여부 : 매우 그렇다(17), 그렇다(16), 보통(8)

3. 입영문화제 가장 관심 있게 참여한 프로그램은?

- 격려 글쓰기(32),부모님 업고 걷기(4), 즉석사진촬영(3), 예술 공연(2)

4. 입영문화제 지속 실시여부 : 매우필요(23), 필요(17), 보통(1)

5. 기타 의견

- 행사 시간 확대, 다양한 콘텐츠 추가, 사전 홍보 강화

### III

## 홍보 활동

### □ 사전홍보

- 인천청 페이스-북에 행사 알림  
- 기 간 : 2018. 4. 9. ~ 4. 16.
- 입영문화제 초청장 발송(우편, e-mail, SMS) : 3. 28.  
- 발송인원 : 3. 28일 현재 입영대상자 304명

### □ 현장 홍보

- 모집 관련 각종 홍보 자료 배포
- 현수막 및 배너를 활용한 홍보  
- 현수막 제작 : 가로 5m 세로 50cm



### □ 입영문화제 개최 언론 홍보(보도)

- 홍보(보도)일시 : 2018. 4. 17일
- 언론기관(5개) : 엔디엔뉴스, 여성종합뉴스, 부천자치신문, 연합시민의 소리, kspnews

- 붙임 1. 입영문화제 행사 사진  
2. 인천청 페이스-북 홍보 게시물  
3. 입영문화제 개최 언론보도. 끝.

【 붙임 1 】 주요 행사 사진



<행사 현수막>



<군악대 공연>



<댄스공연>



<사물놀이>



<자유발언>



<군건이와 즉석사진>



<어부바길>



<어린이그림글짓기 전시>



<사랑의편지쓰기>

# 【붙임 2】 인천청 페이스-북 홍보 게시물

## 인천청 페이스-북 홍보



병무청

인천병무지청  
@incheonmma

홈

게시물

동영상

사진

정보

커뮤니티

홍보하기

홍보 관리

좋아요 팔로잉 공유하기



인천병무지청님이 새로운 사진 4장을 추가했습니다.  
어제 오전 10:37 · 🌐

인천병무지청 2018년도 첫 입영문화제 개최



39명에게 도달했습니다

게시물 홍보하기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 【붙임 3-1】 언론보도 자료

## KSP뉴스

연천병무지청, 2018년도 첫 입영문화제 개최



16일 인천병무청 17사단에 신병이 입소하는 날 부대 정원은 이날 입영하는 입영장정과 애기를 나누는 가족들과 친구들로 붐볐다. 입영장정의 얼굴에는 비록 과거에 비해 요즘 군대가 많은 부분에서 눈에 덜 절도도 개선되고 좋아졌고, 그리고 지금 것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 두렵기보다는 편안함과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입영장정과 웃으며 헤어지는 풍경이 연출됐다.

17사단 신병교육대 입영 풍경은 변화 시킨 것은 병무청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역병 입영문화제'가 큰 몫을 했다. 그리고 이날 입소일이 다른 입소일에 비해 많은 입영장정과 가족들이 모인 것은 올해 처음 17사단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문화제 때문이다. 현역병으로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2011년 3월에 12개 부대에서 시범 개최된 이후 지난해에는 20개 부대에서 총 43번의 축제와 열려 약 10만 여명의 입영장정과 가족, 친구들이 입영문화제를 즐겼으며, 올해도 작년과 같이 20개 부대에서 총 43번의 입영문화제를 개최한다.

인천병무지청대 입영 장정들의 입영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과 불안감 해소하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자진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가족들에게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 축제 성격의 입영문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1회 개최했고, 올해는 전 부대가 각각 1회 개최 예정으로 총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도에 위치한 있는 7사단에서 작은 입영문화제도 준비하고 있다.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입영 현장을 '이별이 아닌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장'으로 만들어 군 복무에 대한 막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세뇌·도전·충발" 시책을 도입했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부 실의 행사와 2부 실내행사로 나누어 약 120분 진행됐다.



1부 실의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족자 사진 촬영, 서로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편지 쓰기 등을 즐겼다. 그중에서도 참가들이 많이 흥분 이벤트를 하는 '어부바놀이'였다. 어부바놀이를 체험한 어머니는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넓고 따뜻한 사랑을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참여한 사랑들에게 군인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하며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넓고 따뜻한 사랑을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참여한 사랑들에게 군인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하며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넓고 따뜻한 사랑을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입영문화제의 주행사인 2부 실내행사는 군악대의 축하공연으로 시작으로 사람들의 심사는 연주와 여성 댄스 팀의 공연으로 입소일이 하루의 정으로 발라춤이다. 참가와 흥겨워, 모자람, 연인들 중산행을 받아 평소 서로서로에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는 자유 발언시간을 가졌다. 자유 발언 참가자들은 "정신 세뇌에 감사하며"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참여한 사랑들에게는 안도감과 격려를 주며 "정신 세뇌에 감사하며"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참여한 사랑들에게는 안도감과 격려를 주며 "정신 세뇌에 감사하며"라는 말을 남겼다.

입영문화제의 주행사인 2부 실내행사는 군악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사람들의 심사는 연주와 여성 댄스 팀의 공연으로 입소일이 하루의 정으로 발라춤이다. 참가와 흥겨워, 모자람, 연인들 중산행을 받아 평소 서로서로에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는 자유 발언시간을 가졌다. 자유 발언 참가자들은 "정신 세뇌에 감사하며"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참여한 사랑들에게는 안도감과 격려를 주며 "정신 세뇌에 감사하며"라는 말을 남겼다.

입영문화제의 주행사인 2부 실내행사는 군악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사람들의 심사는 연주와 여성 댄스 팀의 공연으로 입소일이 하루의 정으로 발라춤이다. 참가와 흥겨워, 모자람, 연인들 중산행을 받아 평소 서로서로에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는 자유 발언시간을 가졌다. 자유 발언 참가자들은 "정신 세뇌에 감사하며"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참여한 사랑들에게는 안도감과 격려를 주며 "정신 세뇌에 감사하며"라는 말을 남겼다.

간호총 기자 kspnews@kspnews.com  
 <저작권자 > 연천병무지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락처 >

## 여성종합뉴스

### 인천병무청, 2018년도 첫 입영문화제 개최

등록일자 | 2018년04월16일 21시46분

[여성종합뉴스] 인천 17사단에 신병들이 입소하는 날 16일 부대 정원은 입영하는 입영장정과 애기를 나누는 가족들과 친구들로 붐볐다.



입영장정들의 얼굴에는 비록 과거에 비해 요즘 군대가 많은 부분에서 눈에 덜 절도도 개선되고 좋아졌고, 그리고 지금 것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 두렵기보다는 편안함과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동반자와 웃으며 헤어지는 풍경이 연출됐다.

이렇게 17사단 신병교육대 입영 풍경은 변화 시킨 것은 병무청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역병 입영문화제가 큰 몫을 했다.

그리고 이날 입소일이 다른 입소일에 비해 많은 입영장정과 가족들이 모인 것은 올해 처음 17사단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문화제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2011년 3월에 12개 부대에서 시범 개최된 이후 지난해에는 20개 부대에서 총 43번의 축제와 열려 약 10만 여명의 입영장정과 가족, 친구들이 입영문화제를 즐겼으며, 올해도 작년과 같이 20개 부대에서 총 43번의 입영문화제를 개최한다.

인천병무지청대 입영 장정들의 입영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과 불안감 해소하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자진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가족들에게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 축제 성격의 입영문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1회 개최하였고, 올해는 전 부대가 각각 1회 개최 예정으로 후반기는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도에 위치한 있는 7사단에서 작은 입영문화제도 준비하고 있다.

16일 시범한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입영 현장을 이별이 아닌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장'으로 만들어 군 복무에 대한 막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세뇌·도전·충발" 시책을 도입했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부 실외행사와 2부 실내행사로 나누어 약 120분 진행되었다.

인천병무지청 김대년지청장의 입영문화제가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입영장정에게는 격려의 말을 가족들에게는 안도와 고마움 전하는 말로 문화제가 마무리 됐다.

인천병무지청은 앞으로 입영장정과 가족이 함께하는 참여체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군복무에 대한 자신감과 자긍심을 주고 가족들에게는 안도와 고마움 전하는 말로 문화제가 마무리 됐다.

입영문화제의 주행사인 2부 실내행사는 군악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사람들의 심사는 연주와 여성 댄스 팀의 공연으로 입소일이 하루의 정으로 발라춤이다. 참가와 흥겨워, 모자람, 연인들 중산행을 받아 평소 서로서로에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는 자유 발언시간을 가졌다.

자유 발언 참가자들은 군복무에 대한 막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에 감사하며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넓고 따뜻한 사랑을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참여한 사랑들에게는 안도감과 격려를 주며 "정신 세뇌에 감사하며"라는 말을 남겼다.

간호총 기자 w67726@naver.com  
 <저작권자 > 여성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락처 >

민원선 (jym000@naver.com) 기자 <이희영의 디톡스뉴스>

## 연합시민의소리

### 인천병무지청, 2018년도 첫 입영문화제 개최

등록일자 | 2018년04월16일 17시17분



[연합시민의소리] 16일 인천부대에 있는 17사단에 신병들이 입소하는 날 부대 정원은 이날 입영하는 입영장정과 애기를 나누는 가족들과 친구들로 붐볐다.

입영장정들은 얼굴에는 비록 과거에 비해 요즘 군대가 많은 부분에서 눈에 덜 절도도 개선되고 좋아졌고, 그리고 지금 것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 두렵기보다는 편안함과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동반자와 웃으며 헤어지는 풍경이 연출됐다.

이렇게 17사단 신병교육대 입영 풍경은 변화 시킨 것은 병무청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역병 입영문화제가 큰 몫을 했다.

그리고 이날 입소일이 다른 입소일에 비해 많은 입영장정과 가족들이 모인 것은 올해 처음 17사단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문화제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2011년 3월에 12개 부대에서 시범 개최된 이후 지난해에는 20개 부대에서 총 43번의 축제와 열려 약 10만 여명의 입영장정과 가족, 친구들이 입영문화제를 즐겼으며, 올해도 작년과 같이 20개 부대에서 총 43번의 입영문화제를 개최한다.

인천병무지청대 입영 장정들의 입영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과 불안감 해소하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자진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가족들에게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 축제 성격의 입영문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1회 개최하였고, 올해는 전 부대가 각각 1회 개최 예정으로 후반기는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도에 위치한 있는 7사단에서 작은 입영문화제도 준비하고 있다.

16일 시범한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입영 현장을 이별이 아닌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장'으로 만들어 군 복무에 대한 막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세뇌·도전·충발" 시책을 도입했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부 실외행사와 2부 실내행사로 나누어 약 120분 진행되었다.

1부 실외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족자 사진 촬영, 서로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편지 쓰기 등을 즐겼다.

그중에서도 참가들이 많이 흥분 이벤트를 입영장정이 부모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길을 걷는 '어부바놀이'였다.

어부바놀이를 체험한 어머니는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넓고 따뜻한 사랑을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참여한 사랑들에게는 안도감과 격려를 주며 "정신 세뇌에 감사하며"라는 말을 남겼다.

입영문화제의 주행사인 2부 실내행사는 군악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사람들의 심사는 연주와 여성 댄스 팀의 공연으로 입소일이 하루의 정으로 발라춤이다. 참가와 흥겨워, 모자람, 연인들 중산행을 받아 평소 서로서로에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는 자유 발언시간을 가졌다.

자유 발언 참가자들은 평소 서로서로에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할 수 있어 좋았고, 긴장이 풀렸는데 입영을 축하해주고 군 생활에 대한 막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해소하며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넓고 따뜻한 사랑을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참여한 사랑들에게는 안도감과 격려를 주며 "정신 세뇌에 감사하며"라는 말을 남겼다.

입영문화제의 주행사인 2부 실내행사는 군악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사람들의 심사는 연주와 여성 댄스 팀의 공연으로 입소일이 하루의 정으로 발라춤이다. 참가와 흥겨워, 모자람, 연인들 중산행을 받아 평소 서로서로에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는 자유 발언시간을 가졌다.

자유 발언 참가자들은 군복무에 대한 막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에 감사하며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넓고 따뜻한 사랑을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참여한 사랑들에게는 안도감과 격려를 주며 "정신 세뇌에 감사하며"라는 말을 남겼다.

간호총 기자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희영의 디톡스뉴스>

## 엔디엔뉴스

### 연천병무지청, 2018년도 첫 입영문화제 개최

등록일자 | 2018년04월16일 21시46분

[연천병무지청] 인천 17사단에 신병들이 입소하는 날 16일 부대 정원은 입영하는 입영장정과 애기를 나누는 가족들과 친구들로 붐볐다.



입영장정들의 얼굴에는 비록 과거에 비해 요즘 군대가 많은 부분에서 눈에 덜 절도도 개선되고 좋아졌고, 그리고 지금 것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 두렵기보다는 편안함과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동반자와 웃으며 헤어지는 풍경이 연출됐다.

이렇게 17사단 신병교육대 입영 풍경은 변화 시킨 것은 병무청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역병 입영문화제가 큰 몫을 했다.

그리고 이날 입소일이 다른 입소일에 비해 많은 입영장정과 가족들이 모인 것은 올해 처음 17사단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문화제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2011년 3월에 12개 부대에서 시범 개최된 이후 지난해에는 20개 부대에서 총 43번의 축제와 열려 약 10만 여명의 입영장정과 가족, 친구들이 입영문화제를 즐겼으며, 올해도 작년과 같이 20개 부대에서 총 43번의 입영문화제를 개최한다.

인천병무지청대 입영 장정들의 입영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과 불안감 해소하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자진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가족들에게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 축제 성격의 입영문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1회 개최하였고, 올해는 전 부대가 각각 1회 개최 예정으로 후반기는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도에 위치한 있는 7사단에서 작은 입영문화제도 준비하고 있다.

16일 시범한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입영 현장을 이별이 아닌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장'으로 만들어 군 복무에 대한 막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세뇌·도전·충발" 시책을 도입했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부 실외행사와 2부 실내행사로 나누어 약 120분 진행되었다.

인천병무지청 김대년지청장의 입영문화제가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입영장정에게는 격려의 말을 가족들에게는 안도와 고마움 전하는 말로 문화제가 마무리 됐다.

인천병무지청은 앞으로 입영장정과 가족이 함께하는 참여체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군복무에 대한 자신감과 자긍심을 주고 가족들에게는 안도와 고마움 전하는 말로 문화제가 마무리 됐다.

입영문화제의 주행사인 2부 실내행사는 군악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사람들의 심사는 연주와 여성 댄스 팀의 공연으로 입소일이 하루의 정으로 발라춤이다. 참가와 흥겨워, 모자람, 연인들 중산행을 받아 평소 서로서로에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는 자유 발언시간을 가졌다.

자유 발언 참가자들은 군복무에 대한 막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에 감사하며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넓고 따뜻한 사랑을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참여한 사랑들에게는 안도감과 격려를 주며 "정신 세뇌에 감사하며"라는 말을 남겼다.

간호총 기자 w67726@naver.com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락처 >

민원선 (jym000@naver.com) 기자 <이희영의 디톡스뉴스>

## 부천자치신문

축하 받는 입영, 훈련소가 축제의 장으로  
인천병무지청 2018년도 첫 입영문화제 개최  
(2018-04-17 오전 6:55:00)



이별보다 감동, 불안감보다 안도감, 흥겨움은 덤

“참 좋단 와, 요즘 군대 정말 좋아졌잖아”

“참 좋단 입영하는 날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도 한다며”

4월16일 이 날은 인천부활주에 있는 17사단에 신병들이 입소하는 날로 부대 정문은 이날 입영하는 입영장정과 애기를 나누는 가족들과 친구들로 붐볐다.

신기한 것은 입영장정들의 얼굴에는 비록 과거에 비해 요즘 군대가 많은 부분에서 눈에 띄는 정도로 개선되고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낯선 공간과 환경에 대한 걱정, 그리고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두려움보다는 불안함과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중반자들과 축으며 얘기하는 흥영이 선 보였다.

이렇게 17사단 신병교육대 입영 풍경을 변화 시킨 것은 병무청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역병 입영문화제’가 큰 몫을 했다. 그리고 이날 입소일이 다른 입소일에 비해 많은 입영장정과 가족들이 모인 것은 올해 처음으로 17사단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문화제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2011년 3월에 12개 부대에서 시범 개최된 이후 지난해에는 20개 부대에서 총 45번의 축제가 열려 약 10만 여명의 입영장정과 가족, 친구들이 입영문화제를 즐겼으며, 올해도 작년과 같이 20개 부대에서 총 45번의 입영문화제를 개최한다.

인천병무지청도 입영 장정들의 입영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과 불안감 해소하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자진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와 가족들에게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 축제 형식의 입영문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1회 개최하였고, 올해는 전 부대가 각각 1회 개최 예정으로 후반기는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도 화제에 있는 7사단에서 첫 입영문화제도 준비하고 있다.

4월 16일 시행된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입영 현장을 '이별이 아닌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장'으로 만들어 군 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청춘! 새로운 도전! 출발! 시작을 응원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부 실외행사과 2부 실내행사로 나누어 약 150명 인원이 열었다. 1부 실외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즉석 사진 촬영, 서로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편지 쓰기 등을 즐겼다.

그중에서도 참가자들이 많이 흥분 이벤트는 입영장정이 부모님을 영고 대화를 나누며 감동하는 어우바일 이었다. “우리 아들 등이 이렇게 넓고 따뜻한지 몰랐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이벤트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군인들의 영원한 간식 견학을 비롯하여 푸짐한 경품을 지급하여 참가자들은 흥은 후회와 함께 푸짐한 상품도 얻는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렸다.

입영문화제의 주행사인 2부 실내행사는 군악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사물놀이 의 선나는 연주와 여정 맨스 팀의 공연으로 입소식이 축제의 장으로 활바꼈다.

참석자 중 무자립, 무자립, 연인형 등 신청을 받아 평소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는 자유 발언 시간을 가졌다. 자유 발언 참가자들은 “평소 서로에게 하지 못한 말을 전할 수 있어 좋았고, 긴장이 많이 있었는데 안을 축하해주고 군 생활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감사하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인천병무지청과 17사단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결론 인천병무지청 김대년지청장 “입영문화제가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문화 기틀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입영장정에게는 격려의 말을 가족들에게는 안도와 고마움 전하는 말로 문화제가 마무리 됐다.

인천병무지청은 앞으로도 입영장정과 가족이 함께하는 참여,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우리 청년이들에게는 군복무에 대한 자신감과 자긍심을 주고 가족에게는 아들들 군에 밀고 말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